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숲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기도서 P. 321 C해
 제1독서 (창세기 14, 18-20)
 제2독서 (고린전 11, 23-26)
 복 음 (루 가 9, 11-17)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강론



“성체를 모시는 자세”

이 재 후 신부

전례개혁이래 입으로 직접 모시던 성체가 손에 받아 모시게 된지 오래다.

신학적으로 어느게 원칙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위생적으로나 미관상으로 손바닥에 받아서 스스로 모시는게 좋기는 하지만 불안한 모습들이 많다. 어떤이는 두 손가락으로 벌레잡듯이 덤비는가 하면, 몽땅이라도 받을듯이 두 손바닥을 내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한 응큼의 휘발유를 먹듯이 고개를 들고 탁 털어 넣어 버린다. 또 어떤이는 성체를 분석이라도 할듯이 요리저리 되작거리다가 엉겨주춤 걸어가며 먹는다. 구구각색의 불편한 모습을 볼때마다 성체성사가 일치의 성사라면 외모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모습도 일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풍습으로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려놓고 받은 다음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서 오른손으로 정중하게 모시면 되겠다. 이렇게 모신 성체는 겉으로만 일치가 아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일치가 아쉽다. 이러한 일치는 그리스도와 나와서 일치만이 아니다. 신자들 서로가 하나이고 형제가 되는 일치이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빵병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셨기에 우리 모두의 일치가 성체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는 나와 이웃이 공동체적인 운명으로 들어가는 일치이다.

우리는 지난달 5·18 엄청난 광주사태를 보고 몹시리치게 놀랐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 칼로 찢리고 몽둥이로 맞아 터져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외면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받았음에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하나가 됨을 안다.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의 사랑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인간 역사의 흐름과 공동체 운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겠다.

(월명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위로마져 마다 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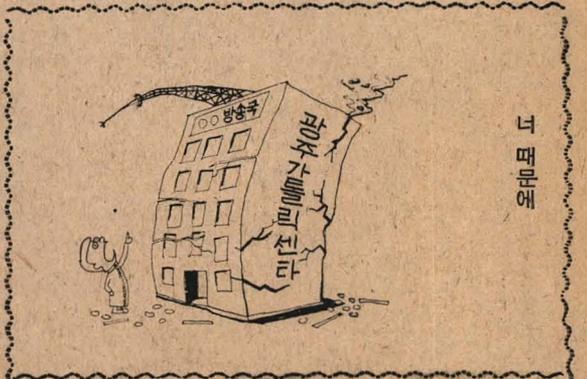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아넘어간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아기들 가운데서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엘, 위로마져 마다 하는구나!”(마태오 2장 16~18절)...

동방의 세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나섰다.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로데왕은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쾌했다. 하지만 혼연하게,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리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박사들은 아기를 찾아내고 경배한 뒤, 꿈의 경고를 따라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다. 이에 화가 난 헤로데는 자기의 새로운 적(?)을 죽이기 위해 무차별 학살을 감행한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베들레헴은 인구 1천명 정도의 작은 읍이어서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20명가량이라고 추정된다.

이 학살은 예레미야의 예언인 「라마의 통곡」을 이루어 낸다. 이 노래는 라엘의 자손에게서 퍼진 여러 부족이 아서티아 군대에게 학살되고 잡혀갔을 때, 라엘이 나무 그늘에서 운 것을 일깨워 준다.

자식의 죽음은 어느 부모에게나 심장이 찢어지는 아픈 일이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도 「자식을 잃고 우는 어머니는 위로마져 마다 한다.」 우리의 이웃, 광주의 어머니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민족도 아닌 동족끼리에서, 그것도 시민들과 그들을 믿는 군인들간의 맞선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숲정이 산책



조국을 위한 기도

(현 시국의 안정과

조국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

우리에게 생명과 조국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
오랜 수난과 고통의 역사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비읍니다.

하느님 아버지! 분단된 이 민족의 슬픔과 소망
을 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불안과 위
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증오와 불신과 폭
력이 지배하는 이 혼돈의 시기에 당신의 진리와 정
의를 이땅에 실현할 참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소서. 당신 백성들로 하여금 불의와 부정에 굴하
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분렬의
쓰라림을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특히 오늘 정의와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
농민, 근로자, 그리고 모든 이웃의 삶에 동참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나약한 우리가 미치지 못
하는 힘과 위로를 당신 친히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당신 사랑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갖 박해속에서도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한 순
교자들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일치합시다

전 국민적 열망인 민주화의 문턱에서 저질러진 지난
5월 18일부터의 엄청난 동족 살상의 광주 유혈사태 앞
에 참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비극의 현장, 그동안 너무
도 뿌리깊은 불의와 불신이 빚은 오늘의 참담한 현실에
우리 모두 어느 누구의 책임이요 과오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과오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가의 사활이 달린 중대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비상한 관심속
에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정
자와 책임자들은 깊이 반성하며 국가공복의 직무에 충실
하도록 자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긴급 소집된 전국 주교단에서는 우선
전 교우들의 열렬한 기도와 노력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이 비극적 상황의 조
속한 타개와 이땅의 진정한 정의 평화를 위하여 금번 광
주사태로 인해 희생된 수 많은 사람들과 그 고귀한 피를
바친 전 애국 시민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아낌
없이 쏟아야겠습니다.

각 본당과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각 본당과 기관별로 광주사태 희생자(사망자)들을
위한 위령미사와 기도를 함께 바쳐주실 것.
2. 광주사태 피해 시민들을 위한 특별헌금과 모금운
동을 실시하여 즉시 교구청에 보내주실 것.
3.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을 권장, 우리의 따뜻한 피
를 나눌 수 있게 적극 협력 바람(가장 시급함) 단 헌혈
은 가급적 성모병원이나 책임있는 병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국가와 민족, 이 땅의 정의 평화를 위하여 시국수
습을 위해 매일같이 특별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 놀러 오세요”

지난 5월 28일 회갑일을 맞아 기도로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신 주교님께 교구내의 많은 꼬마 어린
이들이 정다운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주교님의 건강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기원하는 어
린이들의 귀엽고 고마운 마음들을, 그중 한 장의
편지로 읽어 본다.

주교님안녕하세요
저는이리성심유치

원어/다내고있어요
오늘이주교님생일이야요?

저희유치원에서도 저희

친구들생일이돌아

오면성생님에게서생일

축하를해주요그러면

참기바버요

주교님에게서도기쁘시죠

? 그리고우리친구들이

주교님을보고싶어등해요

우리유치원에놀러

오세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히귀세요

1980. 5. 28

<教會와 政治는 어떤 關係여야 하는가>

정신 차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일반 그리스도 신자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회 문제나 정치의 악에 대해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을 생각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된 교회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원인은 아직도 19세기적 형태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이름아래 정치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구름 위에 교회를 올려 놓고 간접적으로도 정치와 전연 관련이 없는 교회, 즉 「육신을 떠난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 내 인간의 사회관계라든지 정치 등의 제 문제는 교회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것이어서 다만 사람들을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적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족하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보는 일에 한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은 하느님과 자기 자신만의 문제인 것이어서 사회나 정치의 여러 부정에 대해 싸우는 것과는 상관도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복음의 정신은 인간의 모든 실생활, 즉 경제나 정치 등을 완전히 파악해야만 하는 것인데도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직도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문제, 정치문제와 신앙과를 유리시키는 태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즉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회-정치를 포함해서—에 외쳐지기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서 찾는 것은 다만 정신적인 위안일 뿐이다. 자신만 안전하면 사회가 어떻게 해도 좋다는 이기심인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해도 도피해 버리고 만다.

어쨌든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거나 사회를 「구체적으로」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의 악에 대하여 그 악이 정치속에 있든, 경제속에 있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 사회는 점점 악에 물들어 죽어가고 있다.

교회, 즉 필자를 포함한 성직자와 일반 신도 등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향해 그것은 「정신 차려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J. 무르그(일본 가톨릭 사회문제 연구소 지도신부)

謹 吊

빛고을 光州에서, 하느님 마음을 따라 바르게 살다가 비명(非命)에 숨진 분들의 명복(冥福)을 비나이다.

요심이 (357)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점 옆)

전화 ⑥ 6219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딩)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제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377번

□ 운동기구, 추리닝, 유니폼 열절

※ 교우 자매님께 영가 제공

경주체육사

(인후동 전여고 삼거리)

주 김수산나(춘자)

전화 4-0681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창수(바오로)

전주 남문옆

전화 ③ 8188 (자 ③0369)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현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중·고등학생 연합회 회장단 1차 모임...6월 22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 각 본당 학생회장, 지구장 참석 바랍니다.
2. 제 7 회 전주지구 중·고등학생회 친선 단합 체육대회...6월 15일<일> 오전 7시 30분, 해성학교에서
3. 젤미사...6월 14일<토> 오후 4시, 중앙성당에서
※ 4지구 학생회장단 긴급회의도 있습니다
4. 레지오 마리에 꼬미씨울...6월 15일<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 권영균(안도니오) 신부님 영명축일(6월 13일) 축하연은 없습니다
□ 육군 5028부대 군종 참모부 정승현 신부님께서 인성회 기금 38,160원을 보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범
사도 회장 김병규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푸리아: 오후 2시 강당 푸리아 육의행사 무기 원기합니다
 2. 상지회: 6월 11일 오후 7시
 3. 환자 영성체: 10일<화> 수녀님에게 알려 주세요
 4. 첫 영성체: 14일<토> 어린이미사 중
 5. 합동 혼백미사: 8일 저녁미사 중
 6. 부부생활과 영성체할 감의: 18일<수> 7시 30분 강사-문정현 신부,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견진사건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세요
 8. 주교님 회갑예물: 본당-198매, 602,730원
중앙상가-43매, 162,000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1,291원

1. 축! 성심회: 과거 어머니회 명칭을 변경합니다
임원: 회장-윤수산나, 부회장-심테베사
총무-윤안나, 서기-최재을지아
회합일: 매월 10일 오후 2시(사제관)
 2. 반장 월례회: 공식미사 후, 회의실
 3. 공개 썬: 6월 8일 오후 2시 "성가정 썬" 회의실
 4. 반상회: 저녁 8시미사 및 반상회
10일-5만, 11일-6만, 12일-7만
 5. 예수성심 대축일: 13일<금> 저녁 8시미사
 6. 차주 전례담당
등서-한형수, 조동근, 신자들 기도-윤수산나
- 지난주 봉헌금: 135,875원 교무금: 87,500원

(노충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근
사도 회장 박춘근

(숲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광노

1. 제6차 성령세미나 개최: 9일<월>-14일<토>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재속 청년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5시까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5. 성모의 모후 푸리아 회의: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회의실에서
자 빠르게 디움의 간부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테살로니카-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필레몬서, 다같이 읽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91,425원
광주시민 돌기헌금: 53,700원

1. 성모회 월례회: 15일 공식미사 후
 2. 봉헌금 밀리지 않도록 내주시기 바랍니다
 3. 미사시간 변경 안내
주일·평일: 아침미사-5시 30분
주일·평일: 저녁미사-8시
※ 학생미사-저녁 8시, 아동미사-오후 3시
 4. 신축기금 내주시 분: 임종배(10만원), 김경태·백미희(각 10만원), 최정채(5만원), 전동본당 신입액중-이영문(5만원), 장마리아(1만원), 중앙성당 신입액중(24만 4천원)
- 지난주 봉헌금: 173,770원

(떡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기열
보좌 신부 조정양
사도 회장 양열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기석
보좌 신부 유성종
사도 회장 유성종

1. 파티마 성모상 가전순례: 3일간 모실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2. 푸른군단 가입신청서: 다음주일 까지 사무실에...
 3.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최순석 때)
 4. 어머니 성가대 연습: 매주 화 오전 10시 어머니들의 빠짐없는 참석은 바랍니다
 5.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중·고생미사-주일 오전 9시,
주일학교-주일 오후 2시
 6. 병자 봉성체: 9일·10일 오후 2시부터(범신부님)
8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7. 숲정이성당 신축기금 약속하신 분 다음 주일까지 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30,990원 광주사태 헌금: 61,615원
주교님 회갑예물: 212,000원

1. 자모회: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10시미사 후
 4. 유아세례: 9시미사 후
 5.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5시, 저녁미사-8시
 6.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사회-박종규, 1-이신희, 2-김매원
공식미사: 사회-이영자, 1-이준영, 2-고수창
저녁미사: 사회-경양수, 1-이승호, 2-변해석
- 지난주 봉헌금: 494,656원

(파티마)

전화 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1시 30분
자 빠르게 디움 간부들 빠짐없이 참석을 바랍니다
 2. 성모의 밤 행사에 꽃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3. 미사시간 변경: 월 아침미사 6시 30분에서-6시로
 4. 토요일 어린이 교리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7,715원 교무금: 199,500원
성모의 밤 헌금: 37,860원